


국립통일교육원, 유럽 4개국 한국학 전공생 대상 통일 특강 및 현장 견학 실시

- 2021년부터 베를린 자유대 등 유럽 지역 한국학과 대상 4년제 글로벌 통일교육 진행 -

- 국립통일교육원은 8. 19.(월)~22.(목) 3박 4일간 유럽 지역 한국학 전공생,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.
 - 이번 과정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(독일), 보훔 루르대학교(독일),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(이탈리아), 프라하 카렐대학교(체코), 브라티슬라바 코메니우스 대학교(슬로바키아) 한국학 전공생과 교수 등 총 5개국 18명이 참여합니다.
 - 참가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유럽센터에서 유럽 지역 한국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신청받아 성적, 어학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였습니다.
- 참가자들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들로부터 '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'에 대해 특강을 듣고, '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'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.
 - 또한, 국립6.25전쟁납북자기념관, 구 남북출입사무소,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통일안보 현장을 견학하면서 한반도 분단 현실을 몸소 느끼고 통일의 필요성을 체험할 예정입니다.
- 한편, 이번 과정은 베를린 자유대 한국유럽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학 여름 학교(8박 9일)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.
 - 국립통일교육원은 2021년부터 한국학 여름학교와 협력하여 유럽 지역 한국학 전공생이 방학 기간 중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배우고, 통일안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글로벌 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* 한국학 여름학교는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여름 학교 프로그램으로 시작됨.
 - 2020년 베를린 자유대 한국유럽센터 발족,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2020년부터 유럽 여러 대학교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대한민국의 역사·문화·정치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됨.

□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베를린 자유대 한국유럽센터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,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.

붙임 '21~'23년 베를린 자유대 프로그램 사진 

담당 부서	국립통일교육원	책임자	과 장	박상돈 (02-901-7150)
	교육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복혜진 (02-901-703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

1

주제 특강(2023년)



2

교육원 앞 단체사진(2022년)



3

도라산역(2021)